

##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학생운동과 ‘붉은 악마’들

황 건  
(상임의장)

최근 우리 청년학생들의 위축된 모습을 보노라면 4.19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80~90년대의 활기찬 대학문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요즘 대학 구내를 지배하는 소시민적이고 다소 퇴폐적이기까지 한 분위기를 접할 때 당혹감마저 느끼게 된다.

몇 년 전부터 눈에 띄게 드러난 젊은이들의 ‘탈정치’ 현상은 이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6.13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48.9 퍼센트, 그 중 50대 이상 연령층의 투표율은 70~80 퍼센트였는데 반해 20~30대 연령층의 투표율은 20~30 퍼센트 대에 불과했다.

이런 현상은 11월에 시작된 전국 대학의 2003년 학생회 선거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대다수 대학의 투표율이 50 퍼센트를 간신히 넘었고, 투표율 미달로 연기하거나 재선거한 경우가 많았으며, 또 상당수 대학은 아예 후보자가 없어 선거를 치르지도 못했다. 이런 가운데 비권(비운동권)이 전체 당선자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약진을 보였다. 결국 ‘낮은 투표율’과 ‘후보자 기근’ 속에 상대적으로 ‘운동권’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 청년학생의 ‘탈정치’

3.1운동, 4월혁명, 5월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으로, 그리고 전대협과 한총련으로 이어진 학생운동 전통을 생각할 때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패권주의로 민족이 절멸위기를 넘나들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질곡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은 갈수록 도탄에 빠져들고, 사대적인 수구 반통일 세력이 더욱 기승

을 부리고 있는 마당에 학생운동은 오히려 자꾸 위축되어 요즈음에는 "학생운동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니 안타깝기만 하다.

학생운동 침체의 원인으로는 '외적 요인'으로 공안탄압과 취업난 등이, 그리고 '내적 요인'으로 정파싸움과 사분오열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밖에도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특히 정파싸움과 분열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데올로기의 지배 등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사상·문화적인 빈곤과 동요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운동 전반,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요즈음 학생들의 모습은 시대상의 반영이며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데 학생들만 건실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혼란기의 '동요'와 '분열'을 바로잡아 줄 중심이 없다는 데 있다. 기성인들은 학생들과의 대화가 거의 단절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탓하기에 앞서 과연 기성인들은 제대로 중심을 잡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의 등장, IMF 위기, 6.15 남북공동선언 등 급변하는 정세의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학자, 이론가, 운동단체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의 사례로는 '붉은 악마'의 등장 때 갈팡질팡했던 모습을 들 수 있다.

## ‘붉은 악마’ 광란극

온 나라가 '붉은 악마'의 광란극에 미쳐 돌아가던 월드컵 기간 중에 수많은 지식인과 진보적 단체들은 그 엄청난 대중적 열기에 놀라 그저 경탄과 찬사를 보내기만 했다. 우리의 민족민주 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던 6월항쟁, 광주민중항쟁은 물론이고 8.15 해방이나 4월혁명 당시보다도 훨씬 많은 통칭 700만 인파가 전국을 누비며 벌인 그 사상 최대의 열기는 가히 압권이었다. 그러나 그런 광란의 시기에도 용감하게 붉은 악마를 비판하는 외로운 목소리들이 있었다. 인터넷에도 붉은 악마를 비판하는 몇몇 글이 올라왔었다.

인권운동 사랑방은 그 당시 "붉은 악마 현상을 부추기지 말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붉은 악마'들에게 추종하는 지식인들의 망발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당시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 논평은 붉은 악마 현상을 두고 “레드 콤플렉스의 극복”이라느니, “6월항쟁에 나타난 민중 에너지의 재현”이라느니, 심지어는 “우리 민족의 단결력과 애국심”을 과시했다는 따위의 발언은 지식인의 소명을 벗어 던진 추악한 아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매도했다. 또 이 “과시즘을 가능케 하는 병적인 현상”에는 넘실거리는 “국가주의와 맹목적 애국심...체제에 대한 순응과 정치적 무관심과 인간의 주체성을 죽이는 군중심리가 있을 뿐”이라고 갈파했다.

또 어느 정치학자는 월드컵이 ‘최면 축제’가 된 데 대해 개탄하면서 “그 잘난 척 하던 자유주의자들...소설가나 학자들이니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축구 경기 하나 가지고 흥분이 넘쳐 '아, 대한민국~!' '아, 국운이여~!' 써대는 걸 보면 유치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수의 진지한 목소리는 압도적인 월드컵 열기에 밀려 별 공감을 얻지 못하고 비아냥과 조롱, 핀잔 속에 그대로 파묻히고 말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조차도 그 대중적 열기에 나타난 ‘애국심’, ‘집단주의’와 ‘자발적 대중의 힘’에 압도되어 붉은 악마 현상에서 ‘교훈’을 찾는 데 급급하다 보니,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붉은 악마의 열기를 민민운동과 결합시키려는 주관적 희망과 외로운 시도는 참담한 좌절로 끝났다.

붉은 악마의 길거리 응원인파를 집회나 시위행렬에 흡수하려던 노력은 번번이 실패했고,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붉은 악마들은 오히려 시위행렬에 무관심과 냉소로 일관했으며 적대적인 경우도 많았다. 상암동 경기장의 남북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의 남북 응원 행사, 미군의 여중생 살인만행 규탄 집회와 서명운동에 일부 시민들과 상당수의 어린이, 중고등 학생과 네티즌들이 참가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애국적인 선량한 시민들이었지 이미 ‘붉은 악마’가 결코 아니었다. 특히 살인미군 규탄 집회에 참가한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은 월드컵 열기 때문에 파묻혔던 두 여중생의 참혹한 죽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뿐, 붉은 악마를 통해 애국심을 계몽 받은 시민들이 아니었다. 실제로 월드컵 광란극은 전동록씨의 죽음과 두 여중생의 죽음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분노를 잠재우고 6.15 공동선언 1주년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 붉은 악마의 본질

붉은 악마의 성격과 본질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붉은 악마는 ‘정치적 무관심’ 집단이었다. 연초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과반수 응답자들이 새해의 가장 큰 소망으로 “월드컵 16강 진출”을 꼽았을 때부터 월드컵 광란극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IMF 굴레에 매여 신음하는 나라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청소년이라면 이런 대답이 나왔겠는가? 이처럼 ‘탈정치화’된 무의식 청소년들에게서 무슨 애국심이나 민족의식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연목구어일 수밖에 없었다.

청소년들을 이처럼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우민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른바 ‘3S’정책, 스포츠 상업주의, 이에 영합한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이를 방관, 방조한 지식인들이었다. 군사독재 시절에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목적에서 프로야구를 창설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같은 우민화 정책이 나름대로 성공하여, 요즘 축구, 야구, 농구, 씨름, 경륜, 경마 등 각종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찾는 인파는 일상적으로 운동권 집회의 참가자 수보다 훨씬 많다.

둘째, ‘피동적’이었다는 점이다. 월드컵 군중은 자발적 대중이 아니라 거대한 상업주의 매스컴에 놀아난 현실도피의 피동적 군중이었다. 원래 프로스포츠가 발전하면 할수록 대중은 스포츠에서 소외되어 ‘타자’-‘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만다. 축구나 야구, 골프는 할 줄도 모르고 해볼 의욕도 없는 청소년들이 스타선수들에 매료되어 울고불고 하면서 언론의 톱기사로 보도되는 몇몇 외국진출 선수들의 전적에 중독되어 일희일비, 안절부절 못하는 현상은 자아상실과 소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자발적 군중이란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민족의 당면과제나 장래의 운명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월드컵 4강진출에 도취했던 군중은 현실도피의 집단적 최면에 걸린 무의식 ‘개인’들의 집합체였다.

셋째, ‘사대주의’이다. 월드컵에서 “Be the Reds”라든지 “Korea Fighting”이나 “오, 필승 Corea”와 같은 되지도 않은 영문구호가 어느 때보다도 활개를 쳤다는 것은 붉은 악마들의 사대주의적 의식구조를 보여준다. 결국 이들의 응원열기의 밑바탕에는 외국에 대한 열등감과 동경심, 우리도 외국인들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잠재의식, 외국인들에게 잘 보여야 하겠다는 강박관념이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심리현상을 어느 교수는 “지주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소작인”에 비유했다. 월드컵 열기의 사대적 성격은 ‘위대한 히딩크’ 숭배와 ‘히딩크 식 통솔 방법’ 예찬으로 발전하여 이윽고 ‘히딩크 대통령’론에서 그 절정을 이

루었다. 이 같은 의식구조에서 무슨 애국심이나 민족의 저력을 찾는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 자기성찰로 중심을 잡자

물론 붉은 악마에게서 아주 초보적인 애국심을 찾아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애국심은 민족의 운명을 외면한 말초적 감정, 세계화 이데올로기에 영합하여 상업주의에 놀아난 맹목적 애국심이거나 실체 없는 국가주의적 애국심이라는 데 그 본질이 있다. 붉은 악마의 국가주의적 성격을 두고 당시 어느 월간지의 대표적인 극우 논객도 이렇게 자화자찬한 바 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하여 극적으로 폭발한 젊은이들의 에너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고마움으로 해석될 수 있다....지금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의 열정을 북한동포 해방의 이념으로 승화시키는 일이다...월드컵은 국가주의적 열정, 즉 애국심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국민들은 내부갈등을 덮고 태극기, 애국가, 대한민국 중심으로 뭉쳤다.

결론적으로 월드컵과 붉은 악마 현상은 스포츠 상업주의의 위력을, 나아가 세계주의의 위력을 확인시켜 준 ‘이벤트’였다. 요즈음 학생운동의 쇠퇴도 그 여파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이 시대의 사상적 공백과 동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붉은 악마 현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던 우리 모두는 이제야말로 뼈아픈 자기 성찰과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 전환을 바탕으로 세계주의에 맞설 확고한 이념적 중심을 세워나가야 할 때이다. 그래야만 격변하는 이 시대에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우리 청년학생들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2002 전국노동자대회’와 ‘우리 쌀 찾기 전국농민대회’, 그리고 여중생 살인미군 규탄대회가 보여준 열기와 그 규모는 우리 운동이 올바른 중심만 잡으면 얼마든지 대중과 함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확인해 주었다.

사월혁명회보 제66호(2002.11)